

외상거래 지양과 질병예방에 초점을



김 남 익
동두천 채란분회장
인천농장 대표

전 국적으로 채란업계가 혼미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사료가격이 일부 사료회사들을 중심으로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생산비는 개당 80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생산량은 좀체로 줄지않고 있어 적자폭만 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과거에는 계분을 판매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돈을 주고도 처리하기 힘들며, 난좌가격도 생산비의 3%선을 넘고있어 농가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여건이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난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노계도태 보다는 환우를 선택한 농가들이 많아 경제위기를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의심이 되어진다.

계란가격을 보더라도 농장 실거래 가격은 고시가격에서 10원대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다운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20~25원대 가까이 까지 할인당하여 거래하는 농가들이 훨씬 많아 고시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상인들의 실속만 챙겨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것도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채란업을 지켜나가야만 한다. 과연 부실경영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1. IMF졸업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채란인들은 빚을 등에 짊어지고 다닐 정도로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만 최근들면서 5개농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업을 포기하는 등 IMF 한파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앞으로 누가 그 대열에 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같은 원인을 필자는 IMF사태에 기인하고 싶지만은 않다.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겪어야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인천에서 처음 채란업을 시작한 이후 동두천으로 터전을 옮겨 지금까지 약 25년동안 채란업을 경영해오고 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만성이 되어버린 외상거래와 질병확산으로 볼 수 있다.

'70년대 당시까지는 모든 것이 현찰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스스로 노력만 하면 농가 소득에 결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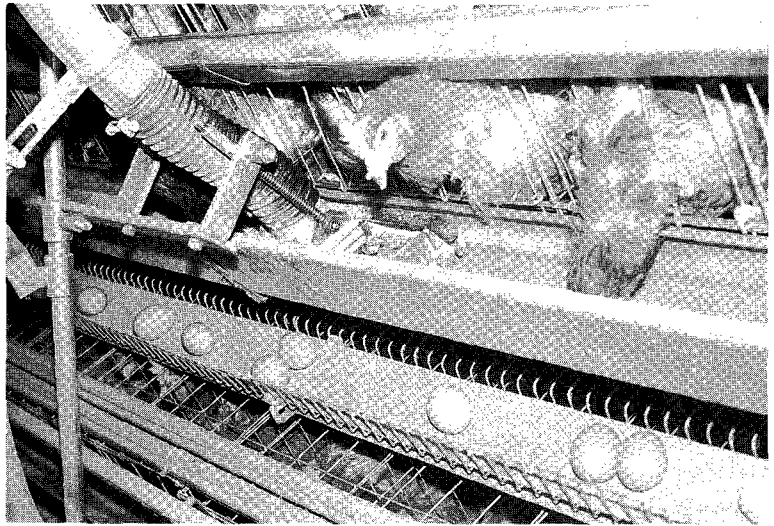
그러나 '80년을 기점으로 사료, 병아리 판매가 열기를 더하기 시작하였다.

사양가들은 케이지만 들여놓으면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쓸 수 있다는 특권(?) 때문에 너도나도 수수를 늘려갔고 자동화 바람이 본격화된 '90년초부터는 정부도 합심하여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사양가들은 이것도 모자라 외환리스를 끌어들여 외형좋은 계사만을 늘려가는데 급급했다.

정부에서 지원된 자금은 세계화에 걸맞게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취지는 좋았으나 유통자금으로 지원되기 보다는 시설자금에 비중을 두면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 자기자본은 들이지 않고 남의돈 쓰기만을 좋아한 것이 빚더미에 오르는 결정타가 된 것이다.

두번째 원인을 든다면 질병문제이다. 특히 '94



년부터 피해를 주기 시작한 닭티푸스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70~80%의 농가가 닭티푸스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해는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옴에 따라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 질병이 확산일로에 있으며 백신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예년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 질병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은 방역대책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겨지며 이제는 생산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닭티푸스를 퇴치하기 위해 백색계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법을 택한다면 단순히 단면만을 생각하는 것이라 본다.

많은 농가에서 백색계 사육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100% 백색계가 농장에서 사육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닭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백신을 반드시 해줄 것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닭티푸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연구기관 및
 제약업체에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여 확실한 예방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발전적일 것이다. 발생 직후부터 가금티푸스로 인해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는 농장을 보면 백신제제와 항생제 등에 의존하여 항상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산란전에 닭티푸스 백신을 할 경우 접종스트레스로 20일정도 산란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예방을 하지않아 전 계군이 피해를 보는 편보다는 유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대답이다.

따라서 닭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농가에서도 백신을 반드시 해 줄 것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닭티푸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연구기관 및 제약업체에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2. 고시가격의 신뢰회복이 중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고시가격은 생산자들에게

‘필요약’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생산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생산과잉 상태에서는 덤핑이 자행되기 일쑤이고 이로 인해 다운폭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인들과 맞설 수 있는 집하장을 전국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바와 같이 전국의 축협조합에서 운영하는 집하장은 12군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통량은 전체 계란생산량의 20%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상인들과 대적해 유통문제의 불합리, 즉 후장기 제도나 고시시세에서의 2~3중 시세 등을 없애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나가야할 조합 집하장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를 대변해야할 조합이 오히려 유통단계만 한단계 더 늘려놓은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을 정도로 좋은 평을 얻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심지어 난가고시를 함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공조체제를 이루며 협조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 상인들에게 빌미만 제공하여 다운폭만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고시가격의 신뢰성 회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난가조절위원들이 서로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고시를 실시하되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동시에 고시를 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지역이라도 약속을 어길 경우 다운폭만을

늘려 생산자들을 혼란속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경기양계 축협을 필두로 집하장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유통구조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어 큰 기대를 해보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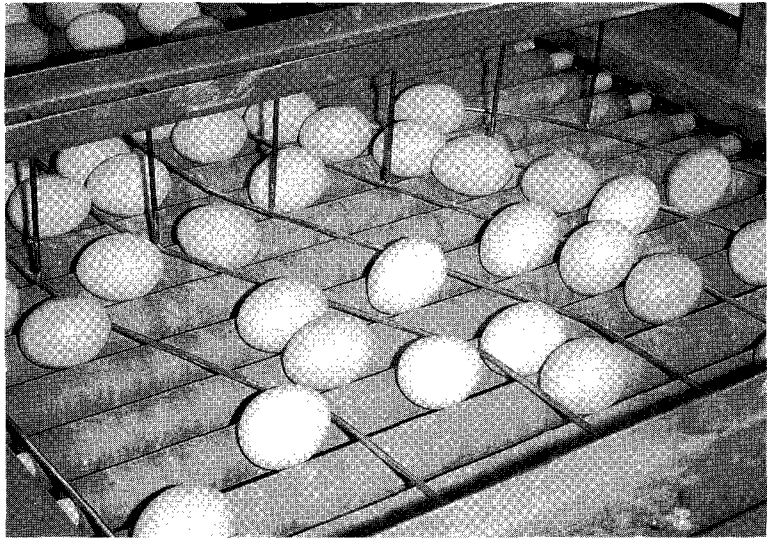
3. 농가 실정에 맞는 생산 조절 필요

생산조절은 필연적이다.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5월 난가가 최저시세를 기록할 때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노계도태보다는 환우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6월 일시적인 난가 상승이 몇차례 있었으나 환우계군들이 생산에 가담하면서 생산비 이상의 가격을 넘는데는 실패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생산을 줄여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하는 대규모 농장들은 소유주가 바뀌면서까지도 입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실질적인 감소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조절을 아무리 유도하여도 남들이 줄여주겠지 하는 막연한 심리가 뿌리박혀 있는한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란 힘들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관해서야 되겠는가! 채란업이 붕괴되고 난후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소용이 없다.

누가 얘기했듯이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생각한다. 누가 줄이라고 해서 줄인다



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가 IMF를 졸업할때까지는 서로 아픔을 나누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6월 한달동안 증계업계에서 병아리 분양을 중단해오고 있다. 이러한 결단은 업계를 위해 현명한 판단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병아리값만을 올리기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러한 감축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본적인 생산조절을 해나갔으면하는 바람이다.

우리 생산자들은 앞으로 환우만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생산조절을 위해 농가실정에 맞는 생산조절을 시급히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도 각 분회 및 관련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계란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하철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계란소비가 신장되어 IMF이전의 땀흘리며 일하면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양계**